

SK케미칼, 중국 · 아프리카에 행복PC 전달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우측)과 김태정 HOPE 대표는 12월24일 행복 PC 기증식을 갖고 중국과 아프리카에 펜티엄PC 80대를 전달기로 했다.

중국 청해성을 향해 출발한다.

SK케미칼(대표 김창근)은 성탄절을 맞아 펜티엄 PC 80대를 해외(중국 및 아프리카 감비아) 영어학교 및 교육기관에 기증했다.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은 최근 대치동 본사에서 기증식을 갖고 협력관계를 논의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HOPE(전문인 선교회)를 통해 전달되는 행복 PC는 중국 청해주, 해남성, 세르첸 티베틴(Sertjen Tibetan) 영어중학교, 아프리카 감비아 지역에서 교육용 PC로 활용될 예정이다.

12월12일 이미 아프리카에 일부 PC가 전달됐으며 나머지 45대는 2006년 1월

<화학저널 2005/12/26>